

3월 5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3월 5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반등성공 [다우: 6,875.84pt (+ 2.23%)]	주요 지수들이 12년래 최저치로 밀린데 따른 반발매수가 유입된데다, 주택차압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모기지시장 안정책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점이 투자심리를 북돋우며, 뉴욕증시는 4일(현지시간) 연일 이어진 하락 행진을 멈추고 반등세로 돌아섰고, S&P 500지수는 하루만에 700선을 회복했음. 특히 중국의 경기부양 기대감으로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에너지와 상품 관련주들이 급등하며 시장 상승에 일조했음.
중국발 혼풍..상품..에너지주 급등	중국발 혼풍도 월가에 유입되고 있음.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가 3개월 연속 상승한데다, 중국 정부가 4조위안(5,8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에 더해 사회간접자본 등의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이 호재가 되고 있음. 이 영향으로 알루미늄업체인 알코아가 12%대의 오름세를 기록했고, 구리생산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Freemore-McMoRan)이 13% 올랐음.
750억弗 주택차압방지책	미 정부는 이날 주택차압방지를 위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조정 계획`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했음. 손도 노번 주택장관이 발표한 이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기지 조정 계획(Mortgage Modification Plan)`은 오는 2012년말까지 효력을 갖고, 이 기간중 자격을 갖춘 주택소유자들은 1차례에 걸쳐 모기지 계약을 완화할 수 있음.
고용지표 부진	지난 2월중 미국의 일자리 감소가 이번 경기하강 국면에서 최대 규모로 상승했음. 민간부문에서 2월 한달간 사라진 일자리는 70만개에 육박했음. 2월중 대기업들의 감원계획 발표는 다소 주춤했음. 그러나 비공개적으로 감원에 나서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미국의 전체적인 감원규모는 더욱 더 확대되고 있음.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ADP)은 4일(현지시간) 전미고용보고서를 통해 올 2월 한달간 민간부문의 감원이 69만 7,000명에 달했다고 밝혔음. 이는 ADP가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최대 규모임.
베이지북 "연초 미 경기 더욱 악화돼"	올들어 미국의 경기상황이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美 연준의 베이지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음. 이번에 발표된 베이지북은 "최근 2개월간 미국경제가 더욱 악화됐고, 신속한 경기회복도 당분간 어렵다"는 결론을 담았음. 베이지북은 특히 식료품과 제약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경기악화가 광범위한 섹터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9% 급등	국제유가가 9%나 급등하며 배럴당 45달러선까지 상승했음.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밖의 감소세를 보인데다, 중국발 수요회복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음.
잡세어링 지원에 사내기금 3조 투입	5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잡세어링으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달부터 1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기로 함. 이방안은 한국노총 등 노조에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달 시행과 동시에 전체 기업으로 확산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측됨.
원화 가치 하락에 신용 위험 급등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위험은 다른 신흥시장 국가들에 비해 2배 가까이 큰 폭으로 급등.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3일 기준 4.65%를 기록.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한 것은 무엇보다 환율 불안이 원인으로 꼽힘.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통화들도 모두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원화 약세는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는 평가.
'4조위안 통큰 부양' 中, 세계 경제 '구원투수'	중국 정부가 '4조 위안+α'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소비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을 중국 전역에 뿌릴 전망.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정협)이 지난 3일 개막한 데 이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오늘) 개막식을 갖고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감. 전인대에서는 '중국판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임.
흔들리는 GE, '동유럽도 한 몫'	월스트리트저널(WS)은 GE캐피탈의 동유럽 익스포저(exposure; 손실위험)가 시장 우려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진단. 동유럽 위기가 깊어지면서 규모는 많지 않지만 GE캐피탈이 폴란드와 터키, 발틱 국가들에 행한 대출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설명.
GM, 내달 현금고갈..유럽국에 'SOS'	미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고용을 볼모로 유럽국에 자금 지원을 요청. 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GM은 이르면 다음달초 유동성이 고갈되고 이에 따라 30만명의 직원이 해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유럽 각국의 빠른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